

27. 지방관을 자칭한 퇴계(48세)

퇴계가 단양으로 군수 발령 받고
임지로 가는 중이었다.

청송은 이름 그대로
푸른 솔이라하니
카~ 이름 좋고...



단양은 물도 맑고 경치도 수려하니,
두 곳 모두 군수로 근무하기 좋은 곳이야..



근무 희망지를 청송으로 했는데
상감께서 단양으로 낙점해
주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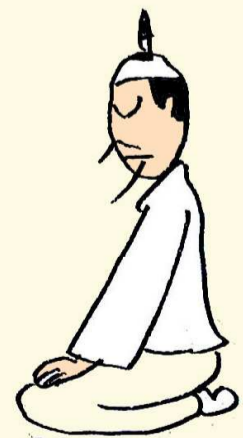


고을을 잘 다스리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퇴계는 군수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유교의
수행법인 경敬을 통하여 오랜동안 마음을
다스렸다.

거경居敬



거경궁리를 통하여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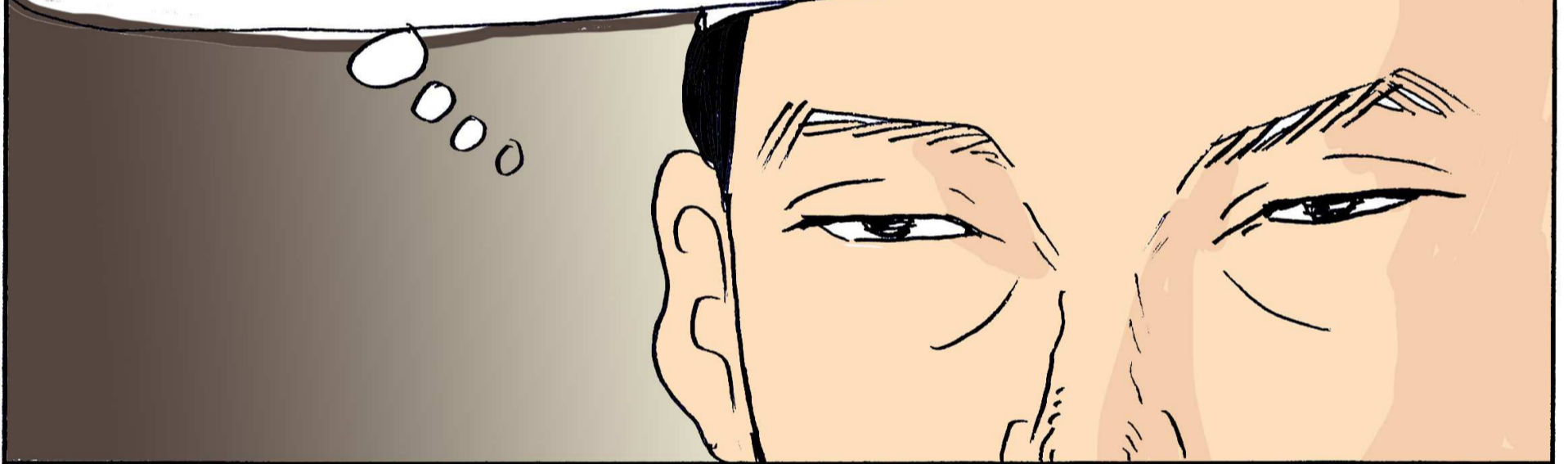
고을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목민이란 백성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간절하고 측은한 태도로 임하여 다스리는 일이 맑고 투명하고 간결해야 한다.



실제로 퇴계는 이런 자세로 다스려서

군수님!

군수님!



그가 있는 동안은 아전들이나 백성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우리 군수님 만세!

군수님 멋쟁이!



퇴계가 부임할 무렵 단양은 가뭄이 극심해 백성들이 식량난에 시달렸다.



이방, 백성들 먼저 구제하는게 급선무다



그렇습니다, 사또 나으리!

창고에 구휼미가 얼마나 있느냐?

충분치는 않지만 기근을 면할 정도는 됩니다요,



창고문을 열어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충분히 나누어 주어라!

창고문을 열으랍신다!

에으이!

배적!



퇴계는 법에 정한 이율을 갚게하고 구휼미를 나누어 주었더니 백성들이 좋아하였다.

신관사또 최고다!



당연히 줄 것을 나누어 주는데 왜 좋아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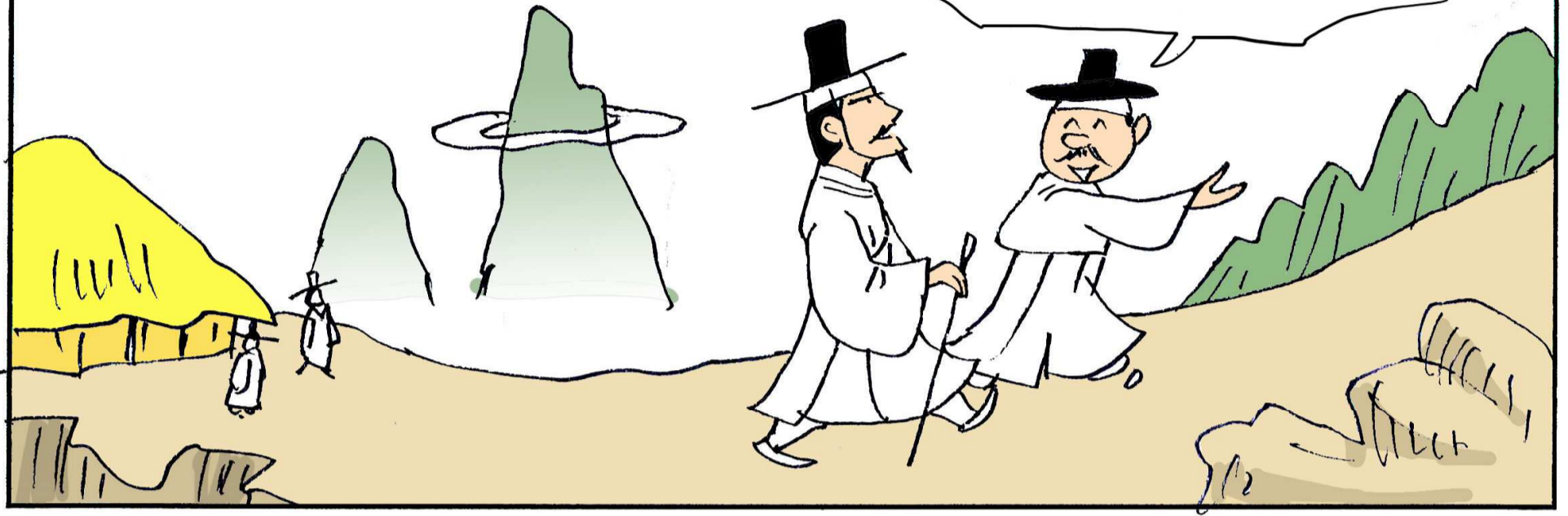
이전 군수들 중에 고율의 이율을 매겨 백성들을 착취한 일이 있었습니다요.





근무 외 시간에는 명승지를 순례했다.

사또 이번에 가는 곳은 특히 경치가 빼어난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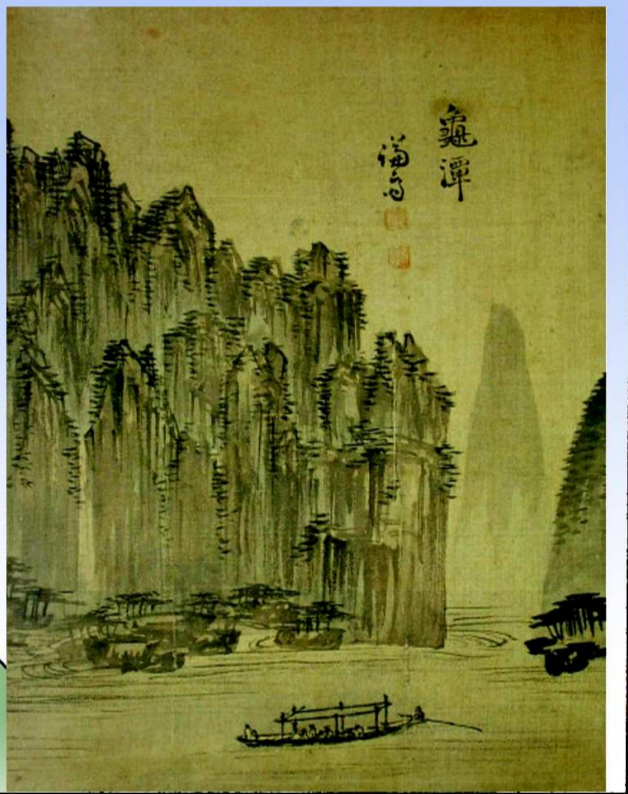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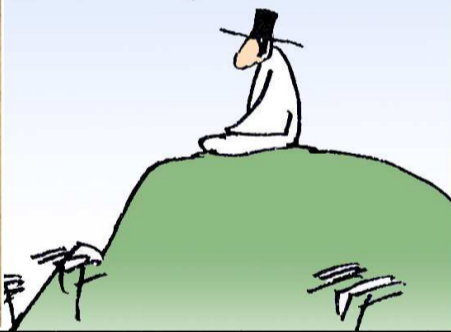
두 봉우리가 하도 아름다워 퇴계는 구담봉, 옥순봉이라고 각각 이름지어주며 홀로 신선이 된 기분이었다.



옥순봉 (단원)

구담봉 (겸재)

하하하, 신선이 따로 없구나!



청송보다 단양에 온 것이 백배 잘한 거 같아.



지금의 단양팔경은 그때부터 전해졌다.

단양이 어디 팔경 뿐이라, 도처가 명승지인데...

